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 연구*

안남일**, 이문성***

- 차례 -

1. 머리말
2. 충주시 문화도시 활성화 사례와 전략
3. 감성 문화 콘텐츠 마이닝과 동선 개발
4. 문화예술 감성 도시 충주시의 남겨진 과제

[국문 초록]

기존의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는 인문(人文)과 지리(地理)를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관광·휴양 콘텐츠를 아우르고 있다. 이것은 충주시의 고유성(固有性)과 시(市)가 지향하는 '감성 문화(感性文化)'를 드러내기에는 다소 산만하고 불분명한 주제의 문제를 지닌다. 이에 인문지리의 세 가지 동선

* 이 논문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9-OLU-2250002)

**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교수 macani@korea.ac.kr

***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초빙교수 panlms@hanmail.net

(動線)을 마련해 본다. <결기(決起)의 길>과 <기예(技藝)의 길>은 충주 시민의 애향심(愛鄉心)과 애국심(愛國心)을 고취하고, <건승(健勝)의 길>은 시민과 탐방객의 가족애(家族愛)와 건강(健康)을 위한 인문지리콘텐츠이다.

이것은 내적으로 충주 시민의 자긍심(自矜心)과 호국정신(護國精神)을 일깨우고, 외적으로 충주의 유·무형(有·無形)의 문화유산(文化遺産)과 관광을 연계한다. 아울러, 충주시의 고유한 기예(技藝) 가운데 한국 전통무술(傳統武術)로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과 한국 전통음악(傳統音樂)으로서 가야금 연주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감성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다. 택견의 동작과 가야금의 선율을 상감(象嵌)한 도시, 문화예술 감성의 충주시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 문화예술, 감성, 문화유산, 택견, 가야금

1. 머리말

충주시(忠州市)는 지리적(地理的)으로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평택제천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역사적(歷史的)으로 선사 유적을 포함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은 물론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시대분포가 총망라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도시이며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상업 물류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정치, 군사,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도시이다. ‘중원문화(中原文化)의 보고(寶庫)’라고 불리는 충주시는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천혜의 자연과 수려한 산수, 계곡, 그리고 유무형(有無形)의 문화자산(文化資產)을 지닌 도시이다.

충주시는 인구 약 21만6천여 명으로 충청남북도 내의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지만 고령화 및 지속

적인 인구 감소가 현저한 도시이다. 이 때문에 충주시는 장기 플랜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종합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충주시 장기 종합개발계획(2001-2020)에 따르면 충주시는 중부내륙권 거점도시, 첨단산업연구생산 핵심도시, 중원역사문화 중심도시, 도농통합형 모델도시 등 4가지 도시상(都市像)을 구상하고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건설을 미래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충주신도시를 기반으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개발과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부내륙선 철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등 도시 기간망 사업 진행과 사회적 약자 및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건강복지 타운, 생활체육 공원 조성, 예술의 전당 신축, 체험관광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 활성화 등)들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가 지닌 자연·지리적 요소와 유무형의 문화자산은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와 충주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적 인식에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은 도심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도의 증폭과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후도시화 및 도시 공동화 현상, 그리고 상권 침체 등 제반 도시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구축과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 확충을 위한 충주시의 노력에 더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 명소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은 충주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충주시의 나아갈 방향성에 있어서 도시 정체성 및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와 문화도시 충주시를 위한 다양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은 같은 층위에서 놓고 고민해야 한다. 문화도시 충주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충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이유로 해서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 새로운 개발과 교육이 요청된다.

2. 충주시 문화도시 활성화 사례와 전략

최근까지 충주시는 지역의 인문(人文)과 지리(地理)를 연결한 다양한 동선(動線)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는 인문과 지리를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관광·휴양 콘텐츠를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인문지리콘텐츠는 문화도시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써 활용된다. 이하 충주시에서 운영된 인문지리콘텐츠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충주 시티투어>는 세 개의 정기 투어(A·B·C) 코스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기획 일정과 관내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투어 코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청 앞에서 출발하고, 투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시청으로 돌아온다.

[표 -1]

	출발(시청)	세부 동선	도착(시청)
A 코스	터미널 - 충주역 - 탄금대 - 충주탑평리 7층석탑 -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 롯데 맥주 견학		
B 코스	터미널 - 충주역 - 총렬사 - 휴탐방로 - 족욕체험 - 수안보 풍물시장 - 롯데 맥주 견학		
C 코스	터미널 - 충주역 - 선사 유적 박물관 - 누암리 고분군 - 충주탑평리 7층석탑 - 롯데 맥주 견학 - 반기문 옛집, 전통시장 장보기		

1)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의 주요 동선과 프로그램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 현황이다.

<충주 시티투어>(표-1)는 모든 코스의 출발과 도착이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버스터미널’과 ‘충주역’을 경유(經由)한다. 이것은 충주시 안팎의 여행객에게 시정 홍보와 교통 편의를 위한 동선으로 여겨진다. A, B, C 각 코스는 고객 위주의 편의성을 높이 살 만하지만, 동선의 주제가 선명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닌다. 단순히 코스의 분할과 나열이 아니라, 여행객의 호기심과 이해를 돕는 주제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반면, 체험과 관광을 지향하는 <감성 버스 투어>라든가, 충주시의 낭만적인 ‘밤하늘과 야유지(夜遊地)’를 소개하는 <감성 별빛 투어>가 주제적인 측면에서 주목된다.

[표 -2]

	출발(시청)	세부 동선		도착(시청)
감성 버스	관광지 -	농촌 -	관광지 -	체험
	중앙탑	딸기	하늘재	짚라인
	루암리 고분	진방	수주팔봉	조정
	고구려비	사과 한과	탄금대	뉘시
미륵대원지	공예	목계나무	3색 온천	
감성 별빛	전통시장 -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 라이트월드			

<감성 버스 투어>와 <감성 별빛 투어>(표-2)는 ‘체험관광센터’가 주관하고, ‘체험·관광 디자이너’가 동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것은 충주시의 인문지리 인프라와 인적 자원(人的資源)을 활용하고 ‘감성(感性)’을 주제로 한 동선으로서 충주시 관광 활성화에 일정 역할이 기대된다. 충주시가 보유한 체험·관광 디자이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 디자이너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교육이 정기 및 상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장년 디자이너 인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일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충주 관광택시>의 경우, 테마 코스(6종 11개)와 추천 코스(5개)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관광택시의 테마 코스는 전부 열한 가지이며, 각 세부 동선과 거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테마 코스	세부 동선과 거점
영화·드라마·책 배경	수안보(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 석종사(배용준 주연,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호암지(영화, <막걸스>), 탄금대(영화, <모던보이>), 삼탄역·삼탄유원지(영화, <박하사탕>), 비내섬(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서부전선> 등), 목계나루(신경림 시인, <목계장터>)
	수안보 - 석종사 - 호암지 - 탄금대
	석종사 - 탄금대 - 삼탄역, 삼탄유원지
	탄금대 - 목계나루 - 비내섬
역사 관광	탄금대 - 중앙탑 - 고구려전시관 - 봉황리 마애불상군
	탄금대 - 단호사 - 미륵대원지 - 하늘재
	중앙탑 - 목계나루 - 민속공예 거리 - 청룡사지
생태 관광	민물고기전시관 - 충주호 -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전망 좋은 곳	충주호, 종댕이길, 비내길 전망대, 중앙탑 철새 전망대, 목계나루(강배체험관, 캠핑장)
체험 관광	롯데 맥주, 조정체험학교, 수상 레저체험(카누, 카약), 짚라인
박물관 투어	세계무술박물관 - 충주박물관 - 강배체험관

<충주 관광택시>(표-3)의 테마 코스를 각각의 주제별로 보면, ① ‘영화·드라마·책 배경’의 거점들을 언급하며 ‘수안보’, ‘석종사’, ‘탄금대’에서 출발하는 3개의 세부 동선을 소개하고, ② ‘역사 관광’을 주제로 한 동선 3개, ③ ‘생태 관광’을 주제로 한 동선 3개, ④ ‘전망 좋은 곳’의 거점들, ⑤ ‘체험 관광’의 거점들, ⑥ ‘박물관 투어’를 주제로 한 동선 등을 소개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장소가 다소 겹치기는 하지만 동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한편 관광택시의 추천 코스는 다섯 가지로 세부 동선을 마련하고 있다.

[표 -4]

추천 코스	세부 동선
1코스	무술공원(세계무술박물관) - 탄금대 - 중앙탑(충주박물관, 조정체험) - 고구려비전시관
2코스	충렬사 - 커피박물관 - 수안보(미륵대원지, 하늘재) - 수안보 온천체험
3코스	중앙탑(충주박물관, 조정체험) - 목계나루(강배체험관) -비내길 - 양성탄산온천체험
4코스	롯데맥주 - 무학시장(반기문 옛집, 삼화대장간) - 관아공원 - 충주호
드라이브	탄금대교 - 중앙탑 - 조정지댐 - 목계나루 - 충주댐

<충주 관광택시>(표-4)는 현지인 택시기사의 ‘실시간 여행 정보’가 여행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충주 관광택시>의 테마 코스와 추천 코스는 지역의 대중교통 편인 택시를 활용한 대표적인 동선들이다. 아울러, 이 동선들은 자가교통 편을 이용한 ‘나 홀로’ 여행자나, 연인·가족 단위의 자유여행 코스로도 적합하다고 할 만하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감성 투어>의 디자이너와 <관광택시>의 기사는 충주시의 문화관광 인적 자원의 긍정적인 활용의 예라고 할 만하다. 다만, <감성 투어>와 <관광택시>의 운영상의 실효성과 활성화에 있어서, 체계적인 조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체험·관광 디자이너와 관광택시 기사의 문화해설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호 정보 교류의 장(場)을 충주시가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충주시 문화관광 교통 서비스의 인력 자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주시는 <추천 여행 코스>로서 세 가지 동선을 더 제공하고 있

다. 이것은 본격적인 자유여행 코스라고 할 만하다. 이를 살펴보면 한층 흥미로운 동선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세부 동선
역사문화	충주호 관광선 - 충주 미륵대원지, 하늘재 - 수안보 온천 - 세계무술공원 (무술박물관) - 탄금대 - 중앙탑 - 충주 고구려비전시관
자연 체험	문성 자연휴양림(목재체험관, Zip-Line) - 고구려 천문체험관 - 조정체험학교 - 계명산 자연휴양림 - 종댕이 길 - 반기문 옛집 - 충주 무학·공설시장
삼색 월빙 온천 체험	· 수안보 온천 : 충주 미륵대원지, 하늘재 - 수안보 곤충박물관 - 수안보 성당 - 수안보 온천
	· 양성 탄산 온천 : 밤골 도예 - 양성 참한우 마을 - 비내길 - 양성 탄산 온천
	· 문강 유황 온천 : 충주 커피박물관 - 수주팔봉 - 햇살 아래 체험농장 - 문강 유황 온천

이처럼, <추천 여행 코스>(표-5)는 충주시의 유형자산(有形資産), 과거와 현재의 문화관광 자원을 총망라하고 있다. <추천 여행 코스>를 비롯한 기존 충주시의 문화관광 동선은 이미 다종다양한 가능성을 지닌다. 다만, 이것이 문화관광 사업으로서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적극적인 홍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다종다양한 문화관광 동선을 근간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충주시가 지향하는 ‘감성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동선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충주시가 보유한 천혜의 유형자산에 고유의 무형자산(無形子産)을 더한 ‘감성’의 주제와 동선의 개발이 될 것이다. 충주시의 자랑으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에 빛나는 한국전통무술 택견과 우륵의 가야금을 비롯한 한국음악문화 등을 활용하여, 감성의 주제를 강

화하고 동선의 세부 공연과 체험을 가미한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하다.

3. 감성 문화 콘텐츠 마이닝과 동선 개발

충주시가 보유한 유·무형자산과 시(市)가 지향하는 감성 문화에 주목해서, ‘역사적인 민(民)의 기상과 자긍심’, ‘전통적인 무(武)·악(樂)의 예술 정신’, ‘정서적인 위안과 안녕’을 체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동선을 마련할 수 있다. 각 동선을 <결기(決起)의 길>, <기예(技藝)의 길>, <건승(健勝)의 길>로 명명(命名)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결기의 길

<결기(決起)의 길>은 충주시와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로서 애국선열(愛國先烈)과 지사(志士)의 삶과 뜻을 기리고, 민족적 기상과 자긍심을 주제로 한 동선이다. 이것으로써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역사(歷史)와 조선의 전쟁사(戰爭史) 및 일제강점기 속에서 불굴(不屈)의 충혼(忠魂)을 되새겨 볼 수 있다.

①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 ② 중앙탑공원 - ③ 탄금대 - ④ 충주 임충민공 총렬사

① 충주 고구려비(高句麗碑) 전시관은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진출’을 입증하는 유적이면서, 한반도 남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의 비석(碑石)을 전시한다. 또한 ② 중앙탑공원의 중심에 자리한 ‘충주탑평리 칠층석탑’, ‘충주박물관(忠州博物館)’, ‘순국선열 위령탑(慰靈塔)’은 충주의 삼

국시대 역사와 민속(民俗)에 관련한 유적과 유물을 관람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 ③ 탄금대(彈琴臺)는 신라 시대에 우륵(于勒; ?)이 가야금(伽倻琴)을 연주한 것으로 전하는 곳이며, 임진왜란 때는 신립(申晷; 1546~1592년) 장군의 ‘탄금대 전투’(彈琴臺戰鬪;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과 왜군이 충주에서 벌인 전투)로 유명한 장소이다. 아울러, ④ 병자호란 때, 임경업(林慶業; 1594~1646년) 장군을 기린 충렬사(忠烈祠)와 장군의 묘소(墓所)를 관람할 수 있다.

<결기의 길>은 중앙탑공원과 탄금대 등의 아름다운 호반(湖畔)과 유서 깊은 유적이 인상적이다. 또한, 조선 후기 설화(說話)와 소설(小說)로까지 다루어져 민중(民衆)의 사랑을 받은 호국(護國)의 영웅(英雄)인 임경업 장군의 유흔(遺痕)은 역사교육의 장(場)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 후기 소설로서 추정되는 『임경업전』(작자·연대 미상)을 재구성한 낭독극(朗讀劇)을 선보인다면, 충주시 고유의 문화관광 상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낭독극은 1인 혹은 소수 인원의 공연이 가능하고, 비교적 공간에 대한 제약과 제작비의 부담이 적다. 조선 후기에 서민 대중(庶民大衆)의 소설을 흥미롭게 읽어 주던 전기수(傳奇叟)와 『임경업전』의 기묘한 에피소드를 재구성²⁾한 현대식 무대로서도 충렬사와 묘소 주변의 자투리 공간이 유용할 것이다.

3.2. 기예의 길

<기예(技藝)의 길>은 충주시의 예술혼(藝術魂)을 주제로 한 동선이다. 이로써 한국 전통음악(傳統音樂)의 명인(名人)인 우륵(于勒; 생물연대 미상, 가야금 출신) 선생의 가야금과 한국 전통무술(傳統武術)인 택견의 성

2) 황은주, 「조선후기 고소설 연행과 임경업전」, 『동악어문학』 53, 동악어문학회, 2009, 8. 231-254면 참고.

지(聖地)로서 충주의 위상을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충주시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無形資產)을 빛내는 동선이라고 할 만하다.

① 우륵당 - ② 택견 전수관 - ③ 충주 세계무술공원 / 무술박물관 - ④ 탄금정

① 우륵당(于勒堂)은 국악(國樂) 전문 공연과 교육 인력을 갖춘 충주시의 자산이다. ② 택견 전수관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의 원형 보존과 전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통무예(韓國傳統武藝)의 전당이다. ③ 충주 세계무술공원은 격년제(10월경)에 이루어지는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주요 무대이다. 이 공원시설의 하나인 무술박물관(武術博物館)은 택견과 더불어 세계전통무예(世界傳統武藝)를 두루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의 인기를 끄는 장소이다. ④ 탄금정(彈琴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야금의 시조(始祖)인 우륵이 음악으로 심금(心琴)을 달래던 탄금대(彈琴臺)의 정자(亭子)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남한강의 경치는 충주시 비경(祕境)의 하나로 손꼽힌다.

<기예의 길>에서 착안하여, 충주시의 ‘문화예술’, ‘감성’을 주제로 한 가야금 집체 공연(集體公演)과 택견의 플래시 몹(flash mob)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충주시의 ‘문화예술 감성 도시’로서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³⁾ 아울러, 인류무형문화유산(人類無形文化遺產)인 택견의 위상을 높이고⁴⁾ 예술혼을 드러내기에 세계무술공

3) 최근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충주시의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공감’, ‘체감’, ‘실감’의 ‘문화예술 감성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감성도시 연구팀,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예술감성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충주중원문화재단, 2019. 10. 123-149면.

4) ‘한국의 전통 무술(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인 ‘택견(Taekkyeon)’은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으로서 2011년에 등재가 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heritage.unesco.or.kr/\(2019.2.3.검색\)](http://heritage.unesco.or.kr/(2019.2.3.검색))> ; 안응길·김은정, 『택견의 연구동향과 과제』, 『대한무도학회지』, 제15권, 1호, 대한무도학회, 2013. 4. 참고.

원(세계무술축제)과 무술박물관의 역할과 활용이 기대된다.

3.3. 건승의 길

<건승(健勝)의 길>은 충주시의 지역 특산물(사과, 다슬기 등)과 요리(산채, 평 등)를 맛보고, 천혜 자연(온천, 계곡, 충주호, 남한강)을 즐기면서 정서적인 위안과 안녕을 주제로 한 동선이다.

- ① 수안보 온천 - ② 미륵대원지 - ③ 하늘재 - ④ 계명산 자연휴양림
- ⑤ 종댕이 길 - ⑥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 ⑦ 양성 탄산온천

① 수안보 온천(溫泉)은 충주시 남동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이다. 조선 시대에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년) 이성계(李成桂)가 피부병을 치료하고, 숙종(肅宗; 재위 1674~1720년)이 휴양을 와서 일명, ‘왕의 온천’이라 일컫는다. 마치 왕족(王族)이 된 듯이 온천에서 몸을 풀고, 주변 향토음식점에서 충주시의 먹거리(‘왕의 수라’)를 맛볼 수 있다. ② 미륵대원지(彌勒大院址)는 고려 초기에 석굴사원(石窟寺院) 터로 전한다. 남겨진 석등, 석탑 등의 석조물을 통해서 웅장했을 절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③ 하늘재[寒喧嶺]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뜻으로 조선 시대부터 일컫던 고갯길의 이름이다. 이곳은 백두대간을 넘는 첫 고갯길로 알려져 있으며,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아울러,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 재위 927~935년)의 아들, ‘베옷을 입고 일생을 살았다’던 마의 태자(麻衣太子)가 패망(敗亡)의 한(恨)을 안고 고갯길을 넘었다는 전설(傳說)이 전한다. ④ 계명산 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은 소백산맥의 지맥인 계명산의 북동면에 위치한다. 휴양림 앞으로 충주댐의 푸른 물이 펼

쳐지고, 인근 선착장의 유람선은 단양(丹陽)까지 오간다. 휴양림 주변에 민물고기를 이용한 음식점이 많아 별미를 맛볼 수 있다. ⑤ 종댕이 길은 ‘종댕이 산’이라 불리는 심향산과 충주호를 돌아 걷는 둘레길이다. ⑥ 충주 자연생태체험관은 생명의 존엄함을 몸으로 느끼는 공간이다. 작은 파충류를 직접 만져보며 교감하고, 동식물의 조화로운 삶을 깨달을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장소이다. ⑦ 양성 탄산온천은 충주시 북서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탄산 온천으로서 유명하다. 보글보글 탄산 온천에 몸과 맘을 담고 편안한 휴식과 안면을 취할 수 있다.

<건승의 길>은 하루 여행으로는 동선이 긴 것을 감안(勘案)할 때에 수안보 온천, 계명산 자연휴양림, 양성 탄산온천 중에서 숙박을 계획하고, 앞서 살펴본 <결기의 길>과 <기예의 길>을 선택적으로 혹은 혼합해서 연휴·휴가철 숙박을 겸한 힐링 여행 동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결기(Gyeonggi)·기예(Giye)·건승(Geonseung)의 길’, 이른바 ‘3G-Road’, 오감만족(五感滿足)의 감성 로드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충주시의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⁵⁾ 감성 로드는 충주시의 유·무형유산과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문지리콘텐츠라고 할 만하다.

4. 문화예술 감성 도시 충주시의 남겨진 과제

현재까지 충주시의 외연적 이미지는 수안보 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관

5) 선행 연구(SWOT 분석)에 따르면, 충주시는 “천혜자연 우수, 무형유산 풍부, 유형유산 풍부, 문화인력 우수, 문화예술 자긍심, 교통의 요지”의 강점(S)과 “삼국문화 전통, 중원시대 명분, 통일 한반도 중심, 다문화 정책 수립”의 기회(O)를 지닌다.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감성도시 연구팀,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예술감성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충주중원문화재단, 2019. 10. 94면 참고.

광도시 이미지와 충주호 중심의 호반도시 이미지, 그리고 탄금대 등 유적지 중심의 중원도시 이미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인접 도시와 크게 변별되지 않는 것으로서 충주시의 유무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이미지를 품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충주시는 기본적으로 문화환경 구축에 관심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도시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히 충주시의 문화환경 개발 및 발전을 통한 도시 기반의 확립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에 근거한 문화적 가치 공유에 대한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충주시는 유무형 문화유산과 역사와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향유를 통한 문화예술의 확산이 중요한 만큼 문화예술교육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거점도시로의 지향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충주시의 고유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의 개발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자 지향점이 되는 만큼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 확보는 물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은 충주시의 도시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요청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기(決起)의 길>과 <기예(技藝)의 길>은 충주시민의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건승(健勝)의 길>은 시민과 탐방객의 가족애와 건강을 위한 인문지리콘텐츠의 동선이다. 이것은 내적으로 충주시민의 자긍심과 호국정신을 일깨우고, 외적으로 충주의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관광(觀光)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의 모색이다.

이러한 모색과 시론적 동선이 실효성을 거두자면 무엇보다, 충주시의 내부 인적 자원(人的資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체험 디자이너’와 관광택시 종사자들의 인문지리 동선의 정보와 현장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것은 관(官)이 공간을 마련하고 민(民)이 기획·운영하는 협업(協業)의 교육장(敎育場)으로서 충주시 인문지리콘텐츠의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된다. 이밖에 충주시의 고유한 기예(技藝) 가운데 한국 전통무술로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택견과 한국 전통음악으로서 가야금 연주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감성(感性)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주시는 시민의 문화 감수성을 제고(提高)하고, 충주시만의 지역 문화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인문지리콘텐츠를 비롯해 택견의 힘찬 동작과 가야금의 고운 선율이 상감(象嵌)된 문화예술 감성 도시 충주시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 of Human Geography in Chungju City

An, Nam-il(Korea University.)

Lee, Moon-sung(Korea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tents of human geography in Chungju city. The existing ones have a rather distracting and unclear subject matt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Chungju city's uniqueness and emotional culture. In this regard, we have prepared three ways for human geography. <Way of Gyeonggi> and <Way of Gyeonggi> promote the love of Chungju citizens and patriotism, and <Way of Geonseung> is the contents of comfort and health of citizens and visitors.

These internally awaken Chungju citizens' self-esteem and national pride and externally link tourism to Chungju's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so, Taek-gyeon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nd Gayageum as a piec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re used to enhance the cultural, artistic and emotional city status. We look forward to seeing Chungju city where Taek-gyeon moves and Gayageum melodies are displayed as a city of culture and artistic sensibility.

Keyword: Chungju City, Humanities Geography Contents, Culture & Arts, Sensibility, Cultural Heritage, Taek-gyeon, Gayageum

[참고문헌]

□ 기본자료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감성도시 연구팀,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예술감성도시
증장기 발전계획 연구」, 충주중원문화재단, 2019. 10.

충주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chungju.go.kr/tour/>(2020. 1. 11. 검색)>
충주시, 「秀 문화관광도시 충주」, 충주시청, 2018.

□ 논문

안남일·이문성, 「세종특별자치시 인문지리교육 콘텐츠 연구」, 『인문사회21』, 제
9권 6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1559-1574면.

안남일·이문성, 「평택시 인문지리콘텐츠 연구」, 『한국학연구』 7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12, 149-166면.

안응길·김은정, 「택견의 연구동향과 과제」, 『대한무도학회지』, 제15권 1호, 대한
무도학회, 2013, 105-114면.

이창신, 「충북의 음악적 정체성과 향후 과제」, 『청대학술논집』 4, 청주대학교 학
술연구소, 2004, 439-457면.

조문식·최혜수, 「충주 우륵문화축제 이미지와 축제효과 평가 연구」, 『Tourism
Research』 19, 한국관광산업학회, 2004, 119-140면.

황은주, 「조선 후기 고소설 연행과 임경업전」, 『동악어문학』 53, 동악어문학회,
2009. 8, 229-258면.

접수일: 2020. 03. 21 총평일: 2020. 04. 19 게재확정일: 2020. 04. 24